

작품 생성

「교향곡 제2번 '1961」은 작곡자가 41세 때인 1962년 4월 17일 스케치를 완료하고 5월 6일 완성하여 5월 14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1회 서울국제음악제 〈한국 작곡가의 밤〉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작곡자의 지휘로 초연하였다.

작품 개요

이 작품은 4·19에서 5·16 군사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테마로 한 작품이다. 제1악장은 4·19 혁명을 그린 것으로서 소나티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제2악장은 선혈을 뿌리고 가신 영령들을 위한 진혼가로서 복합2부분형식이다. 제3악장은 5·16 군사혁명을 그린 것으로 자유스런 론도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1악장에 사용된 「진혼의 노래」(이한직 작사, 나운영 작곡, 1960. 4.12)의 가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혼의 노래

겨레를 위하여 목놓아 외친 소리 메아리 되어 강산을 뒤흔드네
가시를 이고 햇불을 높이든 이 그 뜻 길이 받들어 우리 피도 뿌리리
고이 잠들라 동지 품에 안겨 먼동이 뜨기 전에 가고만 사람들아 젊은 녀들아

목숨을 던져 네가 싸워 이긴 것 우리 거두리 값진 피 식기 전에
이웃 위하여 의로움을 위하여 그 젊음 걸었던 일 헛되게는 앓으리
고이 잠들라 태극기에 싸여 먼동이 뜨기 전에 가고만 사람들아 젊은 녀들아

제2악장에 사용된 「진혼가」(조지훈 작사, 나운영 작곡, 1960. 5.16)의 가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혼가

가슴에 치솟는 불길을 터뜨리니 사무친 그 외침이 강산을 흔들었다
선혈을 뿌리며 우리 싸워 이긴 것 아! 민주혁명의 깃발이 여기 있다
가시밭을 헤쳐서 우리 세운 제단 앞에 울며 바친 희생들아 거룩한 이름아
고이 잠들거라 조국의 품에 안겨 역사를 지켜 보는 젊은 혼은 살아있다.

뜨거운 손을 잡고 죽음으로 맹서하던 티 없는 그 정성에 하늘도 흐느꼈다
더운 피를 쏟아 넣어 네가 죽어 이룬 것 아! 민주혁명의 꽃잎이 만발했다

어둠을 밝혀서 네가 세운 공화국을 못 보고 간 꽃다운 녀들아
고이 잠들거라 조국의 품에 안겨 역사를 지켜보는 젊은 혼은 살아있다

작품 해설

[악보 19]

Musical score for [악보 19] in 4/4 time, featuring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The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The first staff begins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music is written in a style that combines Western musical notation with traditional Korean rhythmic patterns. The second staff continues the melody with various note values and rests. The third and fourth staves show a more complex rhythmic structure with many eighth and sixteenth notes, indicating a faster or more intricate part of the piece.

[악보 1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즐겨 사용하는 음계구성 경향은 이 음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그가 음계를 만들어 쓸 때는 가능한 한 국악조율에 가까운 음계를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점이 크게 주목된다. 아마도 이러한 경향은 그가 「토착화」를 역설하는 마당에 있어서 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음악행위라고 해석해서 큰 잘못이 아닐 것이다.

또 [악보 19]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1962년 - 이 때에 작곡자는 이미 「점묘적 수법」을 나름대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즉, 선율이 지속적으로 흐르지 않고, 쉼표가 삽입되는 것이 곧 그러한 점묘적 수법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안일웅 나운영의 음악작품에 반영된 작곡기법에 대한 고찰」 중에서 -

< Introd. >

I

NO. 1

4/4 Andante

抗 爭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a symphony orchestra. The score is written on 25 staves, each labeled with an instrument or section. The tempo is marked 'Andante'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key signature is one flat (B-flat major or D minor). The score begins with a handwritten '< Introd. >' and a red 'I' above the first staff. The first staff is for Piccolo. The second staff is for Flutes. The third staff is for Oboes. The fourth staff is for Eb Clarinet, with a handwritten '4/4 pp' below it. The fifth staff is for Horns. The sixth staff is for Bb Clarinets. The seventh staff is for Trumpets. The eighth staff is for Saxophones, with sub-staves for Alto, Tenor, and Baritone. The ninth staff is for Bassoons. The tenth staff is for Cym. and Gong. The eleventh staff is for Bb Cornets, with a handwritten '4/4 pp' below it. The twelfth staff is for Baritones. The thirteenth staff is for Horns (Alto). The fourteenth staff is for Trombones. The fifteenth staff is for Bass Trombones. The sixteenth staff is for Eb Basses (Tubas), with a handwritten '4/4 pp' below it. The seventeenth staff is for Drums. The eighteenth staff is for Tympany and Bells. The score contain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including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like 'pp'.